

스토리 발리볼 | V리그 여자 외국인선수들의 한국 적응기...그녀들의 사생활은?



외국인 선수가 낯선 곳에서 뛰기 위한 환경에 대한 적응이 선행되어야 한다. V리그 여자부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선수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생활의 즐거움을 찾는다. 올 시즌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은 베레니카 톰시아는 25kg 대형 반려견과 함께 입국했다. 이 강아지는 이미 팀의 마스코트가 됐다(왼쪽사진). 7년 만에 다시 V리그를 찾은 현대건설 베키에게도 반려견 아메리칸볼독은 큰 힘이 된다(가운데 사진). 지난 시즌부 터 도로공사에서 뛰며 '김천 이씨'라고 불리는 이바나는 전원생활을 즐긴다. 경북 김천의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회를 먹고 있는 이바나의 모습. 사진캡처 | 톰시아-베키-이바나 SNS

톰시아의 반려견 사랑...서울 야경에 반한 어나이



이정용 김진수 정승현

벤투호 3기 주인공은

17일 호주·20일 우즈베크전...5일 발표 손흥민·장현수 빈자리 새 얼굴 가능성

파울루 벤투(49·포르투갈) 감독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은 11월 예정된 A매치를 호주 원정으로 치른다. 17일 호주 그리고 20일 우즈베키스탄과 차례로 맞붙는다.

화두는 벤투 감독의 세 번째 선택이다. 9월과 10월에 이어 3기 소집을 앞둔 벤투 감독은 5일 최종 명단을 발표한 뒤 12일 선수들을 소집한다. 그런데 평온한 것처럼 보이던 벤투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주축선수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기존 명단에서 제외됐던 이들이 부활의 날갯짓을 펴면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일단 벤투호는 주축 공격수 손흥민(26·도르트뎀)과 중앙 수비수 장현수(27·FC도쿄) 없이 11월 A매치를 치른다. 손흥민은 대한축구협회와 도르트뎀의 협의에 따라 이번 소집명단에서 제외됐다. 장현수 역시 발탁이 불발됐다. 2014인천아시아게임 직후 얻어낸 병역 면제 혜택 대신 수행한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협회가 명단 제외를 결정했다.

공수를 책임지던 핵심 자원이 잇달아 이탈한 상황. 그러나 벤투호로서는 그간 숨죽여있던 태극전사들의 부활 덕분에 시름을 덜 수 있게 됐다.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이정용(28·보훤)이다. 오랜 방황을 겪던 이정용은 10월 30일(한국시간) 분데스리가 21라운드 안 레겐스부르크전에서 3도움을 올리며 부활을 증명했다. 공격 2선에서 손흥민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이정용으로선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또한 2018 러시아월드컵 직전 부상을 당했던 김진수(24·전북 현대) 역시 벤투호 경쟁구도에 뛰어들었다. 최근 K리그1을 통해 복귀를 마치면서 측면 수비진 경쟁에 불을 붙이게 됐다.

장현수가 빠진 중앙 수비진에는 정승현(24·가시마 앤틀러스)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9월과 10월 내리 벤투호에 승선했지만 한 차례도 그리운 땅을 밟지 못했던 정승현은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 수원 삼성을 상대로 흔들리지 않는 수비력을 뽐냈다. 주축 수비수인 김민재(22·전북)와 김영권(28·광저우 에버그란데)이 버티고 있지만, 정승현 역시 언제든 중앙 수비를 맡을 자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톰시아의 볼독, 흥국생명 마스코트로 베키도 어머니와 반려견과 함께 생활 알리·이바나, 쇼핑으로 스트레스 해소 한국 3년차 알레나, 일·사랑 모두 잡아

비수도권 축구단에서 벌어진 일이다.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어린 선수를 데려와 입단 테스트를 했다. K리그 팬들에게도 익숙한 유고특급 라레가 추천한 선수였다. 장래성을 보고 코칭스태프는 합격점을 줬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정식계약을 코앞에 두고 사담이 됐다. 그 선수가 울면서 자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라레가 달라고 억박질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서울에서 며칠간 지낼 때는 몰랐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본 비수도권의 주변 환경이 기대치와 다르자 돈보다는 가족생각이 먼저 났던 모양이다. 대도시엔 연고를 둔 구단은 모르겠지만 지방구단은 외국인선수 영입 때 이런 걱정도 한다. 그래서 그 축구팀은 외국인선수를 데려올 때는 꼭 밤에 움직였다. 혹시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시즌 도중 가끔 서울의 이태원으로 데려가거나 대사관에 연락해 말이 통하

는 자국 사람들과 그 선수가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것도 구단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톰시아·베키, 운전 면허 없는 알리

이번 시즌 처음 V리그를 찾은 흥국생명의 톰시아는 해외리그 경험이 많다. 향수병이나 현지 적응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는 무려 25kg이나 나가는 대형 반려견과 함께 입국해 공항에 마중나간 구단 직원을 놀라게 했다. 아메리칸볼독으로 10개월 전에 입양 받았다. 반려견의 항공료도 만만치 않았다. 이코노믹클래스 수준이라고 구단은 귀찮았다. 톰시아의 반려견은 흥국생명 선수들 사이에서 팀의 마스코트 취급을 받는다. 원정경기 때는 개를 돌봐주는 사람을 고용한다. 덩치 때문에 사료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톰시아가 부담한다.

7년 만에 다시 V리그를 찾은 현대건설의 베키도 반려견 아메리칸볼독과 함께 입국했다. 나이차이가 많지 않은 어머니와 숙소에서 함께 지낸다. 자칫 자매로 오해받기 쉬운 정도인데 베키는 그 말을 아주 싫어한다. 현대건설은 외국인선수를 위해 따로 빌라를 얻어주는데 여기서 반려견을 키운다. 베키가 원정 중에는 어머니가 반려견을 돌보지만 만일 두 사람이 동시에 집을 비우면 인근에 있는 프로농구 KGC 외국인

코치들이 대신 돌봐준다. 베키는 처음 한국 생활을 하는 IBK기업은행 어나이에게 서울생활의 ABC를 알려주는 멘토 역할도 해주한다.

처음 한국생활을 하는 GS칼텍스 알리는 조용한 스타일이다. 쉬는 날에는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다. 구단이 얻어준 아파트에서 푹 쉰다. 가끔 백화점에 쇼핑을 다니는 정도다. 운전면허가 없어 외출 때는 택시를 이용한다. 터키리그에서 농구선수로 뛰었던 남자친구는 선수생활을 그만두고 현재 은행에서 일한다. 아직은 한국에서 혼자 지내지만 비시즌 때는 모스크바에 사는 언니의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구단은 전했다.

●어나이의 보리굴비 정식과 이바나의 가을 단풍

IBK기업은행의 어나이는 이번에 처음 프로리그와 해외리그를 경험한다. 트라이아웃 때 한국생활 적응에 의문부호가 붙었지만 구단은 안심하고 있다.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자식간에 유대관계가 좋은 어나이는 전통문화 덕분인지 한국적인 스타일이다. 처음부터 한국음식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쉬는 날에는 현대건설 베키, 인삼공사 알레나 등을 만나서 수도도 땀과 한국생활 정보도 듣는 것이 낙이다. 최근 구단은 딸을 보려고

방문한 어머니와 어나이를 위해 서울 투어를 시켜줬다. 쉬는 날 서울 여기저기를 다녔다.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에서 본 서울의 경치를 가장 좋아했다. 저녁에는 보리굴비 정식을 사졌는데 어나이가 너무나 맛있게 먹었다는 후문이다. 대학시절 하와이를 떠나 유타에서 혼자 생활을 해서인지 독립심도 강하다.

대부분의 외국인선수 숙소는 수도권 가깝지만 김천에서 지내야하는 도로공사 이바나는 다르다. 다행히 이바나는 번잡한 대도시생활보다는 전원생활을 더 편하게 여긴다. 김천 주변 가을 산의 단풍을 좋아한다. 주변을 산책하면서 자연을 보는 것이 취미다. 가끔 서울도 가지만 다녀오면 힘들다면서 숙소에서 쉴 때가 더 많다. 가까운 동대구역의 백화점에 분위기 전환삼아 쇼핑을 가는 것이 소일거리다. 지금은 남편이 방문해 김천의 오피스텔 숙소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 반 한국사람이었던 니콜 이후 도로공사는 외국인선수에게 승용차를 주지 않는다. 한국생활 2년째의 이바나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제주도다. 배우나와 함께 여행을 가려다 일정이 맞지 않아서 다음으로 미뤘다.

한편 한국생활에 가장 적응을 잘한 외국인 선수는 이제 3년째인 인삼공사의 알레나다. 일과 사랑을 모두 한국에서 잡았다.

볼트가 축구로 성공하기 힘든 이유... 1 다른 근육 2 보폭 3 팀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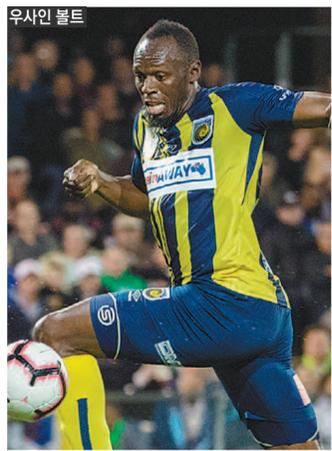
최현길의 스포츠에세이

단거리 육상·축구 사용 근육 달라 자세·팀워크, 단기간 성장 힘들어 전 스페인감독 "기술 습득 큰 장벽"

스포츠에서 자신의 주 종목을 바꾼다는 건 모험이다. 평생을 한 종목에서 피땀을 흘려도 될까 말까한 게 스포츠인데, 종목을 바꿔서 정상에 도전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아예 어려웠을 때 종목 변경으로 성공한 사례는 있지만 성인의 경우는 드물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 전환의 대표적인 사례는 농구의 마이클 조던이다. 조던은 미국프로농구(NBA) 시카고 불스에서 3년 연속 우승한 후 1993년 10월 은퇴했다. 더 이상 동기부여가 없었다. '농구의 신'은 이듬해 프로야구 시카고 화이트삭스 산하 더블 A에 입단해 큰 화제가 됐다. 하지만 타율 2할을 겨우 넘기는 등 기대에는 못 미쳤다. 야구선수 조던의 한계였다. 1년 만에 다시 농구로 돌아왔다. 그리고 1996년부터 다시 3년 연속 소속팀을 정상으로 이끌었다. 조던은 "야구에서 실패했다고 하지만 더 강한 열정으로 농구로 돌아왔다"고 했다.

요즘 관심의 대상은 육상의 우사인 볼트(32)다. 2008년 베이징 대회부터 올림픽에



서 8개의 금메달을 따낸 '육상의 신'은 지난해 런던세계선수권을 끝으로 트랙을 떠났다. 더 이상 이를 게 없었다. 은퇴 후 선택한 건 축구다. 평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를 좋아했던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는 "프로축구선수가 되는 게 꿈"이라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독일과 노르웨이, 남아공, 미국 등을 돌며 입단 테스트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최근 호주리그의 센트럴코스트와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정식 선수가 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다.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걸 두고 알기쉬울 필요는 없다. 다만, 그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볼트의 성공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들이 많다. 크게 2가지 이유다. 종목마다 필요한 근육이 다르다는 점과 팀워크를 중시하는 축구 종목의 특성 때문이다.

볼트의 주 종목은 단거리 육상이다. 단거리라는 짧은 시간에 최대한 스피드를 내야한다. 순간적인 폭발력을 위해 속근이 중요하다. 반면 축구는 지구력이 좋아야한다. 순간적인 동작도 많지만 그걸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지근이 필요하다. 또 앞으로만 달리는 근육이 아니라 전후와 좌우 모두에서 순간적인 힘을 낼 수 있어야한다. 보폭도 차이가 크다. 육상은 최대한 큰 보폭으로 뛰어 아하지만 축구는 아니다. 큰 보폭은 불안감만 키운다. 김학범 올림픽대표팀 감독은 "육상에서 축구 선수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지만, 크게 벌어진 스탠스를 고치지 못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축구의 핵심요소 중 하나는 팀워크다. 개인종목인데다 기록경기인 육상과는 근본부터 다르다. 육상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반면 축구는 90분 동안 팀을 위해 뛰어야한다. 혼자만 잘하면 되는 종목이 아니다. 동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는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야한다. 동료들이 힘들

어지면 팀워크는 깨진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연구원 성봉주 박사는 "축구는 복합적인 운동이다. 1~2년 사이에 기량이 급성장하지 않는다. 볼 트래핑 하나 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고 했다. 또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해 충분한 기술을 쌓아야하고, 체력과 함께 전술 훈련을 해야한다. 이는 전체적인 경기의 이해도를 요구한다"며 "단기간에 모든 걸 갖추기는 쉽지 않다"고 볼트의 한계를 지적했다.

비센테 델 보스케 전 스페인대표팀 감독의 평가에도 공감의 간다. 그는 올림픽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볼트는 역습 위주의 팀, 빠른 공수전환을 노리는 팀에는 녹아들 수 있다. 공간이 있다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큰 어려움은 기본적인 축구기술을 익히는 일이다. 볼 컨트롤, 패스, 드리블, 볼 터치하는 어렸을 때부터 익혀야하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축구를 좋아하는 것과 잘 하는 건 다르다. 또 자신의 꿈과 그 꿈을 이루는 것도 똑같은 순 없다. 볼트의 경우에도 이를 것 다 이런 육상과는 달리 축구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볼트의 열정만큼은 높이 사고 싶다. 특히 30대의 나이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도전 정신만큼은 본받을 만하다.